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남 순 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근 급변하는 사회현상들로 인한 다양한 가족유형들은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족내 세대간 가치차이를 야기하며, 가족갈등이나 사회문제로 파생되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다양화, 다각화로 변모하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인한 가족내 변화에 따른 가족내 세대간의 문제를 다루어봄으로써 세대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현대 사회의 가족구조적인 변화가 가족내 어떤 기능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추구하고 있었다. 첫째,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이고, 둘째, 가족의 심리적 자원으로서 애정, 보살핌과 같은 관계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속성의 요구이며, 셋째, 형식적 관계에서 벗어나 실질적 관계로의 전환, 및 마지막으로, 보다 명료한 의사소통망의 활용이었다. 또한 가족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을 재조명해봄으로써 세대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해본 결과, 첫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의 가변성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야 하며, 둘째, 각 세대가 지니고 있는 상호교환적인 가치를 수용하여 세대간 관계적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셋째, 효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했다. 즉 가족기능의 세대간 전수는 가계와 가문형성의 근원이 될 수 있지만, 세대간의 상호작용없이 불가능하다.

주요어 : 가족위기, 세대갈등, 세대간 통합, 가족생애주기, 효

* 많은 학자들은 보통 세대갈등을 한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구성원들간의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정하여 세대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세대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서로가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어우러지자는 의미에서 '세대간의 화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가족구성원들간의 유대감에 초점을 맞추어 각 개인이 독립된 개체이지만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세대를 넘어서 하나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세대간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아낌없는 질책과 가르침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남순현,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59-1,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 shnam@honam.ac.kr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 구조의 형태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성(性)이 다른 두 사람의 성인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들이 물리적 거주지를 공유하고 상호간에 동의한 목표를 지니는 사회적 체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가족의 기초는 두 사람의 성인들 사이의 헌신적인 관계로 시작되며, 만약 두 사람이 동성이거나 자녀가 없거나 성인 중 어느 한편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전통적 의미에서 가족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변하는 사회현상들은 가족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 개념들을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높은 이혼율은 편부모가족과 복합가족을 양산하고, 빈번해진 입양은 부부가 출산하지 않은 아동들도 가족의 일원으로 포함되게 한다. 또한 자녀 없는 부부들도 하나의 가족으로 수용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가족의 구조가 눈에 띄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모는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간의 자아정체성의 핵심이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생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고, 여성과 남성은 가족 속에서 돌봄과 생계부양이라는 분리된 성역할을 가진다고 본 전통주의적 가족개념은 점차 개인주의적 가족개념으로 바뀌고 있다(Drew, 1998). 첫째, 결혼과 출산의 개념에 대한 변화이다.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는 결혼적령기와 함께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당연한 의무이자 일반적인 여성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됨으로써 혼인율과 출산율이 저하

되고 무자녀 가족이 증가하며 초혼이나 초산연령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결혼을 가족이나 친족관계와 관련시키며 가족에 대한 동조와 의무를 통해 친밀성을 유지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결혼을 개인의 행복 추구 차원에서 정의하고 개인적 관점에서 욕구 충족을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셋째, 한 번 결혼하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된다'는 식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서 벗어나 별거, 이혼, 1인가구 등으로의 가족유형의 가변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이 존재하게 되었다.

아울러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에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형태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의식 측면에 있어서도 신구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김경신, 1998).

한 사회 또는 개인의 욕구 내지 관심이 변화하면 그 사회나 개인이 인정하는 가치에도 변화가 오므로(김태길, 1996),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가치의 변화를 동반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세대간 혹은 연령집단간 가치차이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가치 차이가 심화될 때 여러 가지 가족갈등이나 사회문제가 파생하게 된다. 예컨대, 노인부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관이나 성역할관 및 가족주의 가치관 등의 변화에 따른 부부갈등이나 이혼과 같은 가족 내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화, 다각화로 변모하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인한 가족 내의 변화를 되짚어보면서 가족 내 세대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세대갈

등의 해결책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현대 가족의 변화

가족은 구성원이 살아 숨쉬는 경험의 장이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체계이다. 세대간의 관계 또한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인생주기에 따라 서로의 행동규범이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은 과거의 세대관계에 대한 의무 관계 및 책임들의 새로운 정의와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조병은, 2002).

먼저, 세대간의 관계의 변화 혹은 구성원들간의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논하기 전에 가족유형의 변화를 진단해 봄으로써 구조적인 변화가 가족내 어떤 기능적인 변화를 야기해왔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55년에서 1975년까지 한국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한 최재석(1981)의 보고에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핵가족화를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다. 즉 최재석(1981)은 그 구성이 부부와 3인 이내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도시화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점차 소인수 가족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어서 다인수 가족은 감소하거나 소멸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가 이룩될 때까지 농촌가족은 물론 서울의 가족도 변화, 즉 단순화와 소인수화가 급템포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 가족의 변화를 통하여 최근 변모하고 있는 현대가족의 변화를 예견한 임인숙(1997)의 연구에서도 이혼, 혼외출산, 그리고 편부모가족의 증가를 현대가족의 변화의 지표로 꼽았다. 1960년과 1982년 사이에 이혼율은 세배로 증가하였고, 1960년대초 미국 총 출생아

의 5%이던 혼외출산율은 1990년에 24%에 달했으며, 최근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족의 유형으로서 편부모 가족은 1960년대에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들의 9%만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반면, 1990년에는 그 비율이 24%로 증가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대 가족유형의 특징을 본다면, 무엇보다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후 젊은 세대들 속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과거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족개념의 변화를 야기하면서 기성세대들과 세대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다각도로 변모하고 있는 사회현상들로 인하여 이혼가족, 재혼가족, 편부모가족과 복합가족, 및 동거나 독신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들로 인하여 가족학자들은 가족해체로 인한 불안정성을 가족의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진단하게 되는 한편 가족의 위기를 우려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족의 변화를 진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족변화는 일시적으로 파괴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족은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며, 가족은 쇠퇴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입장을 보인다(임인숙, 1997). 과거 대부분의 연구들(강혜구, 1987; 김정삼, 1990; 이우신, 1992)이 아버지 부재로 인한 자녀의 사회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혼이나 편부모가족에 관한 연구들과는 달리, 이혼과 편부모가족의 자녀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고성혜, 한유진, 1995; 정현숙, 1993)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 이는 가족유형의 다양성으로 인한 사회문제 혹은 가족문제의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가족위기를 우려하기보다는 다각화로 변모하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인한 가족구조 유형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가족변화의 긍정적

인 측면들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 전통적인 핵가족 구조에만 얽매이지 않고,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한 복합가족 혹은 편부모 가족의 기능적인 관계변화나 심리적 자원 등이 현재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대 사회에서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는 이혼가족은 물론이고, 재혼이나 편부모가족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부모가 없다는 사실 자체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조기능론적인 시각으로 인한 보고들은 가족의 상호작용적이며 심리적인 기능면을 보지 못한 단점이 있다(정현숙, 서동인, 1997). 특히,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부모-자녀관계의 질, 자녀에 대한 가치관, 신념, 가족분위기와 같은 내적 · 심리적 상호작용을 간과하였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Horowitz(1995) 또한 편부모 가족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는 시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족의 외해를 초래한다고 보는 가족쇠퇴론자들의 입장보다는 가족진보론적인 입장을 지지하면서 현대 가족의 기능적 변화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들이 가족내 긍정적인 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들을 살펴본 것이다.

첫째,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과거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속성을 아버지와의 관계로 볼 때, 가족관계속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분화에 대한 욕구는 억제되거나 금기시되었고 기존의 질서 속

에서 안주하고 화목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한성열, 1994). 그러나 최근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남순현, 한성열, 1999; 남순현, 한성열, 2001; 유은희, 박성연, 1989; 윤진, 조석미, 1980)은 가족분화수준 애착과 자율성, 대인간 거리를 강조하면서 구성원들간의 적절한 심리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 가족구성원들간의 응집력에 기초하여 하나됨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인 가부장적 관계에서 벗어나 가족체계 내 구성원들간의 독립된 개체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가족원들과의 유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의 심리적 자원으로써 애정, 보살핌과 같은 관계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속성의 요구이다. 최근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는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가시켰고, 이에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로 가족 안에 주부 이외 자녀양육이나 가사부담의 일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전통적인 가족역할로서 자녀양육에 대해 원가족의 부모들이 관여하는 예가 늘어나게 되었다. 비단 취업여성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노년기 부모들의 의존욕구와 맞물려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성인 자녀의 원가족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는 노년기 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해주고 사회적 의존성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성인자녀는 자녀양육이나 가사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영역을 지키면서 원가족의 부모와 심리적 유대감을 지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형식적 관계에서 벗어나 실질적 관계로의 전환이다. 한국인의 내면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유교적인 가부장적 전통은 가족내에서

도 겹치거나 체면을 중시하게 되었고, 최근 부부 중심의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아직까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경제적 지위나 권위체계에 있어서 가족내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는 다양화된 가족유형들을 양산하였고, 부부중심축을 강조하는 수평적인 가족관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강조하는 가족관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다 명료한 의사소통망의 활용이다. 정경유착이니 폐쇄적 관료체제니 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의 결여가 불러일으킨 고질적인 한국병으로 “문화이중성” 또는 “이중적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나은영, 민경환 1998). 이와 같은 이중성은 일보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흔하다(Hofstede, 1980; Hofstede, 1991). 특히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에서는 길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규보다 암묵적으로 통하는 도덕윤리가 더 크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나은영, 1997).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의사소통 습관에 젖어있다 보면, 상대방이 진실로 이야기한 것에도 무슨 공공이 속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게 되어 불필요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불투명한 이중적 구조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쌓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나은영, 민경환, 1998), 이는 가족내 의사소통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의견의 불일치가 가족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가족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길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행동하는 가족내 암묵적 가족규칙들이 지배적인 가족들은 더 이상 그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전달과정이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

고받는 과정이다. 또한 의사소통은 언어적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구속(double-bind messages)과 같은 불명료한 의사소통체계로 인한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문제를 이제 가족 안에서 더 이상 방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에서 현대 가족의 기능적 변화들을 되짚어보면서,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들의 가변성을 수용할 때 가족내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초래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만이 가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회제반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족의 와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여전히, 가족쇠퇴론자들은 현재의 가족변화를 가족제도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내 세대갈등

과연 우리사회의 주요 화두인 세대갈등의 실체는 무엇인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세대갈등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 60대 용퇴론, 신당창당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가 시급함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려는 사람들간에는 심한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당연한 일이며,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보

다 효과적으로 모두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느냐의 문제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세대간의 대결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을 때 구세대는 허탈과 절망에 빠진 반면 신세대들은 월드컵의 승리처럼 환호했다. 노무현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집권당내 구주류와 386세대간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향신문, 2003). 지난 대선을 세대전(世代戰)으로 보는 견해를 정리하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예상할 수 있다. 탈주와 유동성이 특징인 젊은 악마, 노사모, '386'을 아우르는 2030세대 혹은 '2002세대'와 한국사회의 지배층이자 기성세대로 불리는 5060세대간의 충돌이 지난 대선에서 실제로 표면화한 것이며(문화일보, 2003년 7월 31일),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동은 예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거역은 이들의 본능인 셈이고, 결국 노무현 후보는 이들에게 선택당한 상징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초반 6개월 동안 고정된 이념, 계층, 이익집단간 갈등이 모두 세대갈등으로 환원돼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세대충돌의 파국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은 각 세대간 가치관의 상호접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외환위기라는 사회적 혼란은 가치관의 이질성을 줄여놓았고, 이러한 가치관의 정화작용에 동참하여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 또한 기성세대들이라는 것이다(문화일보, 2003년 7월 31일). 따라서 이러한 세대갈등을 긍정적인 사회변동의 동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업은 바로 현 정권의 임무이자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변동은 가족내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사회망 속에서 야기되는 대인관계양상은 결국 가족관계속의 변화를 야기하며, 가족원들간

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투사된다. 즉 사회 속에 만들어진 사회적 혼란이나 세대갈등은 가족내 세대간 혹은 세대내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평생발달적 관점에서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에 따른 가족관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세대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소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 중년기를 중심으로 노년기 부모와 청소년기 손자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노년기 부모-중년기 자녀 관계

세대간의 관계에서 중추역할을 하는 부모자녀 관계는 의무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상호적인 관계이며 일생동안 변화하면서 지속된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할 때 부모는 비로소 의무감에서 벗어나 비교적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부모가 노년에 접어들면 부모는 자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관계의 전환이 일어난다. 가족생애주기에서 이러한 변화는 의존동기의 발달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노인과 가족구성원들과의 공동연결의 유대가 매우 깊은 것은 가족구성원들과 노인의 유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Bengtson, 1971; Bengtson & Kuypers, 1971). 하지만 가족원들이 노인에게 느끼는 유대보다, 노인이 자신의 자녀와 가족원들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가 더욱 깊었다. 다시 말해서 노인이 될수록 젊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 가족을 가깝고 의미있게 느끼고 있었다(윤진, 1980, 1981, 1983; 윤진, 조석미, 1980). 이때 직계자녀를 포함한 가족원들은 노부모의 의존성을 “뒤바뀐 부모의 역할”이 아닌 “자식으로서의 성숙성”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Bleckner, 1965; Brody, 1977; 윤진, 1983 재인용).

Hess와 Waring(1978)은 노년기 부모와 중년기 자녀관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암시하였다(조병은, 2002 재인용). 첫째, 부모와 자녀 모두 성인이다. 부모도 그래왔지만 중년기 자녀도 성인으로서 직장이나 지역사회, 자녀로부터 대접을 받고 권리를 누려왔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의 부모자녀관계는 같이 살면서 상호작용을 많이 하나, 노부모와 중년기 자녀관계는 독립된 가족을 형성하면서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 있고 자립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효에 의거한 복종적인 존재이기를 원치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독립된 존재이기를 원하는 노부모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자녀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둘째, 부모와 자녀 모두 일차적인 의무와 정서적 대상인 배우자가 있다. 노부모는 성인자녀보다 배우자의 행복이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중년기 자녀 또한 자신의 배우자와 자식들에 대한 의무를 부모에 대한 책임보다 더 중요시하게 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 부모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노부모나 중년기 자녀 모두에게 상호 어려움을 겪게 한다.

셋째, 부모와 자녀 모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는 물론이고 역할변화가 많다. 중년기 자녀는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요구받고,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 역할 과다로 시달린다. 반면, 노부모는 은퇴, 질병, 배우자의 죽음 등으로 역할 상실의 아픔을 겪는다. 이러한 부모, 자녀 세계의 역할변화는 각자의 역할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로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갈등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 성인기에 일어나는 역할 변화는 많은 경우 조부모, 부모, 손자녀 모두에

게 관련되어 있고 세대관계유지를 저해할 수 있다.

중년기 부모-청년기 자녀 관계

개인의 생애주기과정에서 청년기는 확고한 자기정의(self-definition)를 토대로 이성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이성과 친밀감을 형성한 성인 남녀는 사랑이라는 덕성을 쌓게 된다(Erikson, 1963). 사랑이라는 덕성을 완성하려는 하나의 시도는 결혼이다. 결혼은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 다양한 가치관 및 경제적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두 남녀의 정서적, 법적 관계이다(Olson & DeFraim, 1994; 유영주, 1995 재인용). 그러므로 개인의 발달에서 청년기에 있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주요 발달과제는 젊은 세대의 자립이다. 즉 가족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성장한 자녀와 부모간의 성숙한 성인으로서 맺은 관계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남순현, 한성열, 2003).

그러나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모와 독립하는 것은 자녀나 부모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부모는 자신이 쌓아온 경력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삶의 다른 방향에 대한 동경으로 삶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중년기 발달과업인 “생산성”을 수행하고자 계속하여 자녀를 돌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가 독립해서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의 독립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녀 또한, 부모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독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갈등을 겪는다(김애순, 2002).

중년기 부모와 청년기 자녀관계는 서로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많고 부모나 자녀 모두가 자아정체감과 생산성의 과업을 수행하면

서 나름대로 성장과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 청년기 자녀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여야 한다. 청년기 자녀의 주요 과업 중 하나는 경력강화이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통한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의 형성은 중년기 부모와 성인 대 성인으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중년기 부모와 청년기 자녀 모두 발달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서로가 독립적인 개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건강하고 좋은 관계형성은 물론이며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노년기 조부모-청소년기 손자녀 관계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은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핵가족의 가족유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원들은 노인세대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Hagestad & Kranichfeld, 1982).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및 가족내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였다(Tuckman & Lorge, 1954; McTavish, 1971; 차용은, 1980; 조명희, 1974). 그 결과, 젊은이들은 노인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노인을 매력 없고, 무능력하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성적으로 무관심하고 어리석으며 소외되었고 생산성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서구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성격특성들을 더 많이 보였다(정태연, 2001; 정태연, 한광희, 2001). 가령,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다소 개방적이며, 기성세대에 비해 보다 더 감각적인 자극들을 선호하고, 이기적이

며 획일성을 거부하는 반항적인 특성들을 보다 강하게 보인다. 반면, 기성세대는 여전히 전통적 가치체계에 근거한 행동특성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젊은 세대보다도 상대적으로 사회제도에 대해서 권위지향적이며, 사회적 가치에 대해 순종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여 획일적인 특성을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서의 세대차이는 과거보다 문화변동의 속도가 더 빠른 현대에서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정태연, 2001).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과 보호아래에서 독립하려는 독립성이 강해지고, 권위와 전통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가하는 동시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 주변집단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는 시기이다(Santrock, 1996). 또한 청소년기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강한 외부지향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에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개별화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조부모와의 세대간 유대를 통해 문화적, 정신적 연속감과 통합감을 전달받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며(Barranti, 1985), 세대간의 교류와 사회화과정을 통해 부모세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세대이다(성규탁, 1995; 현은민, 1994).

과거 전통사회의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조부모 세대가 손자녀의 양육, 훈육, 그리고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손자녀의 사회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문화전송의 역할자로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이광규, 1989). 현대사회 속에서도 최근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가 노년기 부모들의 의존욕구와 맞물려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조부모의 긍정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간의 분리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낳고 있다. 즉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관계의 약화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관계와 달리,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는 명백한 권리와 의무관계가 아니고 조부모역할에 대한 행동적 기대도 모호하다. 이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중간의 부모세대에 의해 연결되므로 부모세대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간접적인 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이다(Kivnik, 1982).

하지만 청소년세대의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조부모와의 바람직한 상호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인과 세대간의 갈등의 정도 및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Burke, 1982). 아울러 조모의 역할은 조부모와 손자녀의 특성 및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지만, 조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비록 따로 살지라도 애정적인 관계이며 핵가족의 중요한 지원체계 역할을 한다(조병은, 2002).

맺는 말: 세대갈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

세대와 세대가 다른 것은 있을지언정 서로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사회든 이러한 세대의 끊임없는 교차로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굳이 세대통합을 논하지 않더라도 모든 세대는 어차피 한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호연관을 가지며 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세대갈등과 통합의 문제는 세대와 세대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서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사느냐의 문제이다(김성곤, 2002).

우리나라는 현재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넘어갔으며, 세대와 세대가 조화의 관계라기보다 갈등과 긴장의 관계 속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농경시대의 대가족 사회로 역류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태적(ecological)” 가족 사회¹⁾로의 전이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인위적 통합의 시도라기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태적 유기적 사고를 갖고 행동할 때 가능하다. 인위적 변화든 자연적 변화든 간에 어떤 변화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현대사회 가족의 구조기능적인 변화가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사회문제들 속에서 야기되는 세대간 차이와 갈등으로 혼란을 겪기보다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세대간의 통합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세대가 변할지라도 기성세대들은 전통적 개념의 가족구조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최근 다각화로 변모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반면,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과 연령에 따른 불평등과 자기부정을 기반으로 했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얽매어 부부간의 평등과 가족원들의 개인적 권리를 손상시킬 수 없게 되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만 보더라도, 결혼과 가족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되었던 결혼의 영원성이라는 이상 대신 행복한 결혼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즉 가족형성과 사회적 성원의 재생산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개인에게 사회적 의무이며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던 전통적 개념에서의 결혼과 달리, 결혼관계의 형성과 해체는 개인 의지의 문제가 되었다. 이제 개인은 자아실현과 발전을 위해서 혹은 의미있는 타인과의 결합을 위해서 결혼이

1) 생태적 사회란 가족과 가족, 세대와 세대가 서로 상생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김성곤, 2002).

라는 하나의 생활양식을 선택한다.

하지만 최근 변화하는 결혼관이나 급속한 이혼율 증가를 기존의 결혼제도의 종식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단지 특정한 형태의 결혼, 즉 불만스러운 결혼을 끝내려는 사람들의 증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변화한 것은 결혼제도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결혼의 이상과 가치이다.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결혼은 제도의 안정성을 꺾을 수 있으나 개인의 행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혼과 재혼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관계를 더 나은 관계로 대체함으로써 결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결혼제도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창조적 이혼으로 이해하여야 하며(임인숙, 1997), 복합가족, 편부모 가족, 동거부부, 독신가족 등을 전형적인 가족(the Family)으로부터 이탈된 가족의 증가에 따른 대안 가족으로 거부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택, 자유, 자기표현의 기회 및 다양성의 허용으로 인정하며, 그 나름대로의 강점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새로운 세계와의 적응을 위한 정신적, 신체적 성숙과 함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려는 독립적인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같은 연령층의 또래집단과의 친밀도와 동일시의 특성을 강하게 갖는 발달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Weinberger & Millhan, 1975; Tomas & Yamamoto, 1975; 이선자, 1989; 이은혜, Seefeldt, 1989)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해 이중적 태도, 즉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조부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가족내 세대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대문제의 초점이 되는 부모와 자녀관계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가족체계 속에서 다양한 생활영역을 공유하며,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세대간의 연계성이 더욱 강하다. 이러한 연계성은 사회 속에서 내집단을 강조하는 가족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한 집단의 성원으로 성장한 개인에게 사회는 넓은 의미의 우리라는 내집단이며, 그 집단 속에 있는 각 세대들은 가족체계 성원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와 결혼의 영원성에 대한 달라진 가치관은 가족유형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노년기 부모의 의존욕구와 맞물려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기에 핵가족은 노인부양이라는 심적 부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확대가족과의 물리적 단축화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생업을 중심으로 부락을 형성하면서 가계를 이루고 살아왔던 것과 유사하게, 현대 사회에서도 핵가족과 확대가족과의 물리적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핵가족은 노부모를 근거리로 모심으로써 노인부양의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원가족과 심리적 유대감을 지속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양계제로의 수정확대가족의 변화를 야기하여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아들과 딸 모두에게 비교적 동등하게 이루어지게 하며, 노인부양에 대한 선택적 세대관계로의 변화는 형제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세대간 통합을 위해서는 각 세대가 지니고 있는 상호교환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세대간 관계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의 전통적 유교사상에 근거한 가족 중심주의는 한국적 가족이기주의를 극대화하였고, 차등적 형태의 사랑을 합리화시켰으며, 내세끼 유일주의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나올 정도

가 되었다(최준식, 1997). 가족내 차등적 형태의 사랑은 다른 형제들보다 첫째를 우선시 하게 되었고, 여아보다 남아를 더 선호하게 만들었다. 또한 내새끼 유일주의는 '우리'를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이나,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는 방계보다 직계가족을 더 중시 여기는 풍토를 낳았고, 정서적 유대가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내리사랑'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가족내 세대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윗세대가 아래 세대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지속시키려는 베푸는 사랑의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새끼 유일주의는 집단간 관계의 거래비용 차이로 인하여 집단내 관계에만 편안하게 머물러는 경향 때문에, 패거리문화나 파벌주의를 형성한다. 파벌주의는 특정 집단속에서 내편과 남의 편을 가르게 되고, 수직적 위계질서를 형성하여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소속원들에게 표면적으로 웃어른에 대한 공경을 강요한다. 따라서 내리사랑과는 달리,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웃어른에게 향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효'라고 하였으며, 과거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충성(*invisible loyalties*)²⁾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감 또한 '효'였다(남순현, 한성열, 2003). 이것이 전통적 유교사상에 근거한 효의 개념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 효는 부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부모중심적 효에서 자기중심적 효로 점차 달라지고 있다. 과거 부모의 존재는 위엄과 경외의 대상이었으나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바뀌면서 자녀의 올

바른 생활 자체가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보다 중시되었다(한규순, 1988). 다시 말해서,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한 개체로 여기는 자유평등의 가치관은 무조건 효를 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즉 현대적 의미의 효는 부모에 대한 공경보다 부모로부터 독립된 한 개체로서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것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현대적 '효'는 규범적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것이라야 하고,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고영복, 1983), 강압적이고 규범적인 것보다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가치합리적인 방향으로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신적 유대를 맺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박재황, 1989). 하지만 옛것과 새것은 반드시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새로운 문물이 기존 전통에 통합함으로써 그 수용이 더 순조로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족내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효'는 현대사회의 합리적인 능률개념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부담감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족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부모와 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을 재조명해보면서 세대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해본 결과,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의 가변성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가족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야 하며, 각 세대가 지니고 있는 상호교환적인 가치를 수용하여 세대간 관계적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효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했다. 따라서 가족내 세대간 통합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각 개인이 독립된 개체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가족기능의 세대간 전수는 가계와 가문형성의 근원이 될 수

2) 보이지 않는 충성(*invisible loyalties*)은 가족구성원이 원가족 또는 그보다 더 여러 세대에 걸쳐 조상에게 가지는 정서적 관여나 의무감으로 정의된다(Boszormenyi-Nagy & Sparks, 1973). 특히, 재혼가족의 자녀들은 원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심에 대한 딜레마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있지만, 세대간의 상호작용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대갈등을 긍정적인 사회변동의 동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업은 특정 세대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세대간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서 가족변화의 긍정적인 측면들과 세대간의 기능적인 측면들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구 (1987). 결혼가정 고교생과 정상가정 고교생의 가족 및 자아에 대한 개념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경향신문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고성혜, 한유진 (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 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20, 60-73.
- 고영복 (1983). 전통사회의 효개념과 현실적 과제.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 49-58.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성곤 (2002). 세대통합을 위한 전망과 과제. 2002년 한국청소년학회·한국노년학회 공동학술대회 기조발표, 11-18.
- 김애순 (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시그마프레스.
- 김정삼 (1990). 정상가정 아동과 편부모 아동의 인성특성 비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길 (1996). 세대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 아세아학보, 6, 80-81.
- 나은영 (1997). 법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법의식에 관한 심리학적 분석. 법과 사회, 14, 76-204.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남순현, 한성열(1999). 가족분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탐색: 단일차원인가? 다차원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209-222.
- 남순현, 한성열(2001). 3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625-640.
- 남순현, 한성열 (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05-523.
- 문화일보 (2003. 7. 31). 가치관의 상호정화로 세대갈등은 극복된다.
- 박재황 (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재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9-117.
- 성규탁 (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1-14.
- 유영주 (1995).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유은희, 박성연 (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윤진 (1980). 노년기의 성격 및 적응특성과 노인복지. 사회복지, 여름호, 58-74.
- 윤진 (1981). 가족관계와 노인의 심리. 사회복지, 겨울호, 95-111.
- 윤진 (1983). 발달단계와 의존동기의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1(2), 204-233.
- 윤진, 조석미 (1980).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75-85.
- 이광규 (1989). 한국가족론. 일지사.
- 이선자 (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우신 (1982). 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은혜, Seefeldt, C. R. (1989). 한국 아동과 미국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생활과학집*, 3, 173-179.
- 임인숙 (1997). 미국가족의 변화를 둘러싼 논쟁. 97년 후기 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회, 262-267.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19.
- 정태연, 한광희 (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회*, 2(1), 1-14.
- 정현숙 (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한국아동학회지*, 13, 59-76.
- 정현숙, 서동인 (1997). 편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자원 및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18(2), 163-176.
- 조명희 (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태도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병은 (2002). 가족내 세대통합의 현황과 과제. 2002년 한국청소년학회·한국노년학회 공동학술대회 - 세대통합, 71-85.
- 조성남 (2001).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이에 관한 일 연구. 91년 후기 사회학대회, 66-73.
- 차용은 (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9, 12-23.
- 최재석 (1981). 산업화와 가족형태의 변화. *한국학보*. 일지사.
-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한규순 (1988). 중학생의 효에 대한 의식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성열 (1994).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47-59.
- 현은민 (1994).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전달 및 가치변화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24-35.
- Barranti, C. (1985). The grandparent / Grandchild relationship: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 343-352.
- Bengtson, V. L. (1971). Inter-ag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the generation gap. *The Gerontologist*, 85-90.
- Bengtson, V. L., & Kuypers, J. A. (1971).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the developmental stak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49-260.
- Burke, J. L. (1982). Young children'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4(3), 205-221.
- Drew, E. (1998). *Re-conceptualizing family, Women, Work and Family in Europe*. N.Y.: Routedledge.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Hagestard, T. S., & Manaster, J. M. (1982). *Issues in the study of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Paper presented at the NCFR theory and Workshop.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s.
- Horowitz, J. (1995). Conceptualization of parenting: Examining the single parent family. *Marriage and Family Review*, 20, 43-70.
- Kivnick, H. Q. (1982). Grandparenthood: An overview

- of meaning and mental health. *The Gerontologist*, 22, 59-66.
- McTavish, D. G. (1971). Perceptions of old people: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ndings. *The Gerontologist*, 11(4), 90-101.
- Tuckman, J., & Lorge, I. (1954). Attitudes toward the old work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6, 149-153.
- Weinberger, L. E., & Millham, J. (1975). A multi-dimensional, multiple method analysis of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0(3), 343-348.
- 1 차원고접수일 : 2004. 4. 5
최종원고접수일 : 2004. 4. 30

K C I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Integration in family

Nam, Soonhye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The drastically changing society has brought diverse types of families, and these diversities are changing the concept of the word 'family' itself. Inevitably, these changes cause different viewpoints among family members, developing into conflicts and social issues. In this paper, generational family problems, which are caused by changes within the family as a result of the variously, diversely changing society, are observed to suggest a resolution. Looking into the functional variety that today's structural change within a family demands, several positives changes described below have been observed; Firstly, the change in the way of interaction among family members; Secondly, the demand for continuance on relational functions including love, care, etc, as a psychological resource of family; Thirdly, the conversion from form's sake relationship to actual relationship; and Lastly, the usage of a clearer communications network.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changes in family life cycle, is also re-focused to seek resolutions for intergenerational confli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hangeability of various family types today must be accepted, and the functional aspects of changing families must be emphasized ; Secondly, the mutual-exchanging value of each generation must be accepted, strengthening relational functions between generations; Thirdly, it is necessary to refocus filial piety. In other words, though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functions may become the basis of lineage and clan formation, it won't be possible without interaction between generation.

key words : family crisis, generational conflict, generational integration, family life cycle, filial piety